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 **문화와 창조** | 도시와 삶

창조도시 광주, 주변의 일상을 먼저 관찰하자

이무용

“

철도역사, 소방서, 소도축장, 발전소, 탄광시설, 공장, 창고 등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고, 도시정체성을 담고 있다면 어떤 공간이라도 근현대 문화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한국의 도시들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은 화력발전소를 문화발전소로, 인천은 해안창고를 예술공간으로, 대구는 연초장을 문화창작발전소로, 포천은 폐채석장을 창작스튜디오로, 신안은 소금창고를 미술관으로 만들고 있다.

”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북경의 다산쯔 798 예술특구, 런던과 리버풀의 테이트모던 미술관, 에센의 레드도트뮤지엄, 요코하마의 아카랭카(빨간 벽돌),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지역의 역사와 기억,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휴·폐공간들을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만든 창조공간들이다.

철도역사, 소방서, 소도축장, 발전소, 탄광시설, 공장, 창고 등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고, 도시정체성을 담고 있다면 어떤 공간이라도 근현대 문화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한국의 도시들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은 화력발전소를 문화발전소로, 인천은 해안창고를 예술공간으로, 대구는 연초장을 문화창작발전소로, 포천은 폐채석장을 창작스튜디오로, 신안은 소금창고를 미술관으로 만들고 있다.

많은 도시들이 창조도시를 표방하면서 창조공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2004년부터 창의 도시 네트워크 제도를 실시해 현재까지 가나자와(민속예술), 베를린(디자인), 브래드포드(영화), 에딘버러(문학), 볼로냐(음악)등 25개 도시를 창조도시로 선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서울(디자인)과 이천(공예민속예술)이 유일하게 네트워크에 가입한 상태다. 전주(음식)도 가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부산광역시는 창조도시본부를 설립하고, 창조도시포럼과 연구모임을 연계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한국창조도시학회 창립학술대회가 부산대에서 개최되어 학문적 담론도 선점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창조지역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조도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어떠한가. 민선 5기를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행복 창조도시’를 도시비전으로 선포하였다. 문제는 창조공간에 대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추억과 기억,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공간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거나 방치되고 있다.

필자가 광주에 온 2006년 이후 사라져버린 공간 중 가장 아쉬운 곳이 일제시대 조성된 학동 8거리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골목디자인을 간직한 곳이다. 전세계 도시전문가들에게 한 번만 보여줬어도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될 수 있었던 곳인데 현재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민주광장 앞 일본식 목조주택도 갑자기 사라지고 빌딩이 생겼다. 80년 역사를 지닌 수피아여중 별관도 사라졌다. 50년의 역사를 지닌 태평극장도 광주음식박물관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무너지고 주차장이 들어섰다. 40년 역사의 구동체육관도 사라졌다. 인권도시 광주의 핵심자원인 구도청 별관과 505보안부대 옛터, 광주교도소, 전일빌딩도 제 모습을 간직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 시민회관도, 무등경기장도 철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아직 보존되고 있는 근현대 문화자산인 중앙초교, 충장로 중앙우체국, 동부소방서, 일신·전남방직, 광주극장, 광주기계 등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위해 많은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빛고을시민문화관, 쿤스트할레 등 새 건물들만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조심스레 광주읍성, 유림숲, 경양방죽, 태봉산을 복원하자는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황당한 소리로 치부되고만 있다. 도시의 최고 공간문화자산인 골목의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다.

줄리어드 음대 예술교육학 교수인 에릭 부스는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이라는 책에서 일상창조의 핵심 조건을 ‘관찰’로 두고 있다.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일상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생리학자와 역사학자인 루트번스타인 부부 역시 ‘생각의 탄생’이라는 저서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13가지 생각도구 중 첫 번째로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수동적인 보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창조도시는 광주가 지닌 일상의 공간들을 심도깊게 관찰하여,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왜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료화하고, 토론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프로세스 기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광주의 창조적 잠재력과 창조공간 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창조성과 창조도시에 대한 광주 고유의 철학, 시민 소통과 합의를 통한 광주 창조도시 비전의 공유, 창조공간-창조산업-창조인력의 유기적 연계 체계, 광주의 창조공간 유형화(보호·복원형, 정비·치유형, 연계·네트워크형, 혁신·재창조형, 교육·확산형), 이 모두를 포함한 창조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광주 근현대건축물 철거 방치만 할 건가

광주의 지역문화유산인 근현대 건축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0년 남광주역사(1934년 건립)와 한국은행 광주지점(1950년 건립)이 자취를 감췄고, 2007년에 광주 YMCA 금남로관 옆 일본식 목조주택(1910년대 건립)이, 2008년에는 수피아여중 별관(1930년대 건립 추정)이 철거됐다. 그 자리엔 공원이나 주차장, 시멘트 건물이 대신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전남도청 본관과 서석초등학교 본관·체육관·별관 등 10개가 전부이지만 이 또한 언제 철거될 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 건축물은 일제 강점기→ 해방→6·25→5·18 등을 거친 근현대사의 증인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 건축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임의로 철거되는 것은 광주시의 관리 부실과 법규 미비 탓이 크다. 등록문화제의 경우 건축주가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야만 지정이 가능하고, 설사 지정됐다 하더라도 보존이나 철거 결정은 건축주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이다.

광주시 역시 관리 부실이라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물 보존 기준이나 목록 작성 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립 시기에 상관없이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건축물 보존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광주가톨릭센터와 광주극장, 현대극장 등이 단적인 예다. 현황 조사도 없이 근현대 건축물 지정 보고회까지 가졌다니 이해가 안 된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산업 등 소프트적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의 적절한 공간 보존과 활용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근현대 건축물의 즉흥적인 철거는 역사를 그만큼 허물어 버리는 것과 다름 없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문화수도 광주’의 척도임을 다시금 유념해야 할 일이다.

이란 제재, 기업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정부가 8일 금융거래 금지 등 독자적인 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의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 허가없는 금융거래 금지 및 입국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한 게 핵심이다. 또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허가받지 않은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이란 제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명분을 저버릴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복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명분과 실리라는 상반된 목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이유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이란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도 이란의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수출하는 지역 기업은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금호타이어 등 25개 업체에 달한다.

여기에다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도 이란 제재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란 제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국내 기업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먼저 멜라트 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마저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입 대금의 대체 결제 창구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 또 이란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대 이란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무역거래가 장기간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시몽

경험해 볼 수 없는 죽음

공자는 일찍이 “내가 많이 알아서 성인이 아니라 많은 일을 지냈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자만의 말이 아니다. 인생이란 이와 같이 숱한 일을 겪으면서 죽음에 이른다. 이를테면 사랑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다. 삶이란 경험의 과정이요 연속이다. 그러나 죽음만은 절대로 경험해 볼 수가 없다. 경험을 거부하는 세계다.

물론 우리는 남의 죽는 것을 보고 죽음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맥박이 끊어지고 신체가 싸늘하게 경화하여 생명 없는 물체로 화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일 뿐 주체적 체험은 아니다. 죽음은 주체적 경험과 자각적 체험을 거부한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앞지를 수 없다. 죽음을 한번만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죽음은 인간의 영원한 한계상황이다. 이것은 인류가 안고 가야할 영원한 숙제인 셈이다. 상황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고 변혁할 수도 있다. 도시가 싫으면 시골에 내려가 살 수 있고 제도 또한 그렇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돌파할 수도 없는 절대적이고 운명적 상황이 있다. 이것이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은 인간의 절벽이요, 전후가 단절된 운명적 한계이다. 우리는 이성적 존재인 동시에 시간적 공간적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마주선 인간이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서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삶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절대 모순이 있다.

상식적 인생관은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땅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한다. 죽으면 그만 이라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일생관이라 하겠다.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과 내세의 존재를 말한다. 생명은 두 번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이생관이다. 불교는 다생관을 취한다. 사람의 생명은 과거·현재·미래를 통해서 윤회를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도 나는 존재해 있었고 죽고 난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여 자기가 짓는 행위에 따라 전생에서 금생으로 금생에서 내생으로 그칠 줄 모르는 사이클처럼 윤회 전생한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고 취하고 지지하던지 죽음에 의해서 현재의 생을 끝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엇이 옳은지는 범인의 인식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기본적 감정을 갖는다. 첫째는 공포요, 둘째는 비애요, 셋째는 허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미워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관념적 무지에서 오고 비애의 감정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에서 온다. 허무의 감정은 자기의 존재가 결국 하잘 것 없다는 사실에 유래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인의 말씀과 그들의 행적을 본받아야 하는 절대성이 있다.

〈장성 백양사 주지〉

기고

김은영

광주비엔날레 즐겁게 감상하는 법

우리 시대 서양미술사 개론의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는 ‘서양미술사’의 저자 E.H.곰브리치에 따르면 “서양미술을 지배하는 것은 아는 대로 그리는 것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의 두 경향이 있고 그것은 되풀이돼 나타난다”고 했다.

이집트의 회화는 아는 대로 그리는 회화이며 그리스와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이 보이는 대로 그리는 회화라면, 현대미술의 어떤 것은 ‘아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분류한 것이다. 현대미술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전통적인 서양미술사의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 역사적인 척도들의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미 반도체가 캔버스를 대신했고 예술엔 더 이상 나침반이 없으며 종종 우리들의 관용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었다고도 한다.

현대미술은 과연 어렵기만 하는 것일까? 현대미술이 난해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미술은 미적인 것의 상실로 우리들에게 미적 감동, 미적 경험을 더 이상 공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과연 온당한가? 흔히 현대미술은, 감상을 위해 어느 정도 축적된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찍이 이탈리아의 철학자 베네딕토 크로체가 “예술은 직관이며 직관은 표현이다”고 했듯 직관으로 감상할 수만은 없는 것일까? 이즈음해서 현대미술의 축제 광주비엔날레를 즐겁게 감상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인 듯 싶다.

이번 제8회 광주비엔날레는 어려운 현대 미술 작품의 나열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특별히 주제에 맞춘 현대 미술 작품도 다수 등장하지만 문화적인 작품, 인류학적인 작품,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일상적인 미술 작품이 많다는데 주목할 수 있다. 이름난 거장의 작품과 함께 지난 100년 동안의 이미지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한 시대를 관통하는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기나긴 흔적들을 느끼고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장들의 ‘명단’에 기죽지 않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만인보’라는 주제의 이미지 박물관을 마음 편하게 누빌 수 있는 것이 이번 비엔날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다.

광주비엔날레의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은 “예술이란 가지 못한 길,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를 중요하게 기리고 기억해 내는 전시회를 꿈꾸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힌 바 있다.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에서 시험문제를 풀려할 때에도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핵심이듯이 전람회에서도 전시기획자의 의도를 먼저 이해하면 감상이 훨씬 즐겁고 여유롭다.

‘삶 속에서 중요한 이미지가 무엇일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 사이사이 삶과 현장의 상징적 제스처는 무엇일까? 예술과 사회의 경계는? 그 긴장의 관계는 무엇일까?’ 일찍이 고은 시인이 만 사람의 족보를 써오면서, 그 ‘만인보’를 통해 알아 왔고 스쳐 지나갔던 역사 속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르며 예술에 관한 사색을 함께할 수 있다면 66일의 이 가을여정이 행복할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정책연구실장〉

無等鼓

진도 아리랑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라 하면 단연 아리랑일 것이다. 아리랑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가사와 곡조로 전해져오면서 독특한 정서와 특색을 담고 있다. 지역마다 있다고 할 정도로 많지만 3대 아리랑 하면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 진도아리랑은 즉흥적인 노랫말과 애절한 사랑, 삶과 죽음 등의 민중적 정서를 담고있어 가장 서민적인 아리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사는 주로 사랑인데 님에 대한 감정을 즉흥적 해학과 익살로 풀어내고 있다. 여인들이 주로 부르다보니 여인들의 노래, 즉 ‘부요(婦謠)’라고 불린다.

사설(메김소리)과 후렴이 어울리는 ‘2행 1연’ 형식이라 즉석에서 사설을 만들어 부를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끊임없이 진화가 가능하다.

영화 서편제에 등장하는 아리랑 사설 한 대목인 “소리따라 흐르는 떠돌이 인생, 첩첩이 쌓인 한을 풀어나 보세”는 주인공인 떠돌이 소리꾼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아리랑 본청은 진도고, 하이칼라 본청은 서울에 신 맏지” “진도라 대교는 연육교라, 섬 큰애기 소리는 말도나 말게”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타령이기도 하다.

진도사람들의 아리랑 사랑은 유별나다. 2007년에는 진도아리랑 첫번째 메김소리로 음악교과서에 등장하는 ‘문경새재는 왠 고갠가~’의 ‘문경새재(조령·鳥嶺)’가 ‘문전 세재(인생살이 세 고개)~’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향토사학자가 수년동안 현장에서 채록한 진도아리랑 가사집을 한권에 집대성했다고 한다. 가사집에 등장하는 메김소리가 무료 777개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다양한 민초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는지를 짐작할 만 하다. 즉흥적인 가사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진도아리랑에 시대를 반영하는 메김소리가 계속 덧붙여지길 기대해본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기능 단순하고 저렴한 휴대폰 출시 기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매장에 갔더니 3분의 2이상은 내게 필요없는 기능들이었지만 그런 것을 빼서 싸게 나온 제품은 별로 없었다. 내가 꼭 사고 싶었던 모델에는 무선인터넷 기능까지 있었지만 내겐 필요도 없었고 그 모델에는 그런 기능을 뺀 게 없어서 가격이 아주 비쌌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화 송수신, 전화번호부, 모닝콜과 문자 송수신 정도만 필요하다. 아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걸로 안다. 요즘 쓰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비싸고 다루기 복잡한 것 보다 꼭 필요한 기능만 있는 휴대폰이 많았으면 좋겠다. 업체들이 장삿속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다양 이런 식으로 기능을 나눠서 제품을 만들어주길 고대해본다.

▲신재민·목포시 수강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